



黑白필름 國産化에 成功

—KIST 유기합성 研究室서—

한국科學技術研究所(KIST) 蔡永福박사 (유기합성研究室 室長)가 이끄는 研究팀은 지난 1月 16日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흑백「필름」製造에 成功. 科學技術界에 또하나의 實績을 쌓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산 輸入에만 의존하고 사용해온 “카메라”용「필름」 및 「스튜디오」용 「슈트」필름 그리고 흑백 영화필름 까지를 國內生産으로 충당케 되므로써 外貨절약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同研究팀에서는 지난해 3月 17日 새한상사주식회사의 研究위탁으로 흑백필름 生産의 技術開發研究에 착수. 이 研究의 핵심이 되는 유제(乳劑·에밀선)를 開發했고 塗布는 대한사진의 塗布機械를 利用 완전히 국산화하는데 成功을 보았다는 것. 現在 全世界에서 흑백필름을 自國生産하고 있는 나라는 美國·英國·西獨·이태리·일본 등 6개국이며 이번 KIST 유기합성연구실에서 그 生産에 成功의 실험을 끝냄으로써 우리나라는 7번째로 흑백「필름」의 生産國이 된 것이다.

이 연구팀에 依해 開發된 乳劑의 重要 성분인 값비싼 增減色素 질산 銀등의 化學原料는 대부분 國産化가 가능하고 필름베이스 제라틴만 수입하면 「필름」의 完製品生産이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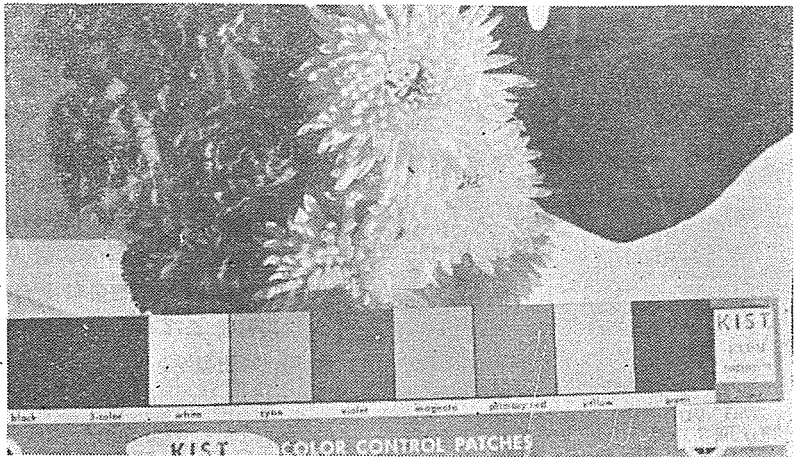
그리고 필름베이스에 乳劑를 입히는 塗布機械는 1시간에 一萬個(20코트차리)를 도포할 수 있는 기계가 國內에 두대가 있으므로 1年안에 國産「필름」의 多量生産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外貨획득의 전망도 밝다고 관계자들은 낙관하고 있다.

또한 國産「필름」의 국제 경쟁성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우리나라의 生産실정에 비추어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필름베이스에 乳劑를 바르는 작업을 직접 사람이 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비싸게 먹히는 외국에 비해서 좋은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生産이 가능한 이흑백「필름」은 感度가 ASA1百~1百 50까지의 「필름」이므로 高感度의 필름까지 開發하려면 아직 많은 研究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 한편 카메라는 우리나라에서 生産되고는 있으나 原資材를 거의 완전히 外國에서 도입 약간의 가공을 걸쳐조립한후 商品化하고 있는 實情이다. 「필름」을 비롯하여 카메라등 사진관계분야는 정밀공업에 속하기 때문에 原資材 및 技術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리고 완전 국산인 印畫紙는 외국시장의 진출이 넓어지고 렌즈만있으면 製作이 손쉬운 확대기는 국산이 나온지 오래다.

따라서 아마추어용 백흑「필름」의 국산화 成功은 앞으로 모든 종류의 필름을 국산화 할 수 있는 한 돌파구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진분야에서 單價는 가장높으나 국산화율은 가장 낮은 카메라의 國産化率 향상은 앞으로의 중요 과제라고 한사진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편집부》



<생산에 성공한 국산필름으로 찍은 사진>